



참고을, 김제시에 이웃돕기 성금 1억원 기탁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순동 산업단지에 소재한 ㈜참고을(대표 김윤권)이 9일 사회복지시설과 저소득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이웃돕기 성금 1억 원을 기탁하며 '희망 2025 나눔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참고을은 지난 2015년 전북 1호 나눔 명문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꾸준히 지역 사회를 위한 나눔을 실천해 왔다. 올해도 1억 원 기부를 통해 김제시에 지역 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있다.

㈜참고을 김윤권 대표는 "김제에서 받은 사랑을 지역에 환원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나누고자 기탁하게 됐다"며, "이 성금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작게나마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참고을의 변함없는 나눔은 지역 사회에 큰 힘이 되고 있다. 어려운 시기에도 지속적으로 기부를 이어오시는 따뜻한 마음에 깊이 감사드리며, 기탁된 성금은 꼭 필요한 곳에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감사사를 전했다.

한편 ㈜참고을은 참기름과 들기름 등 식용유지와 전통 장류를 생산하고 있는 종합식품 기업으로, 국민의 먹거리를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는 기업이 되겠다는 철학을 가지고 세계적으로 한국의 맛을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서주유유, 김제시에 이웃돕기 성금 1000만원 기탁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요촌동에 위치한 ㈜서주유유(대표 권수득)가 9일,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해 이웃돕기 성금 1천만 원을 전달하며 '희망 2025 나눔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서주유유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동일한 금액을 기탁하며, 지역 사회를 향한 따뜻한 나눔을 이어가고 있다. 이 같은 지속적인 선행은 지역 주민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권수득 대표는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성금을 기탁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꾸준히 나눔을 실천 해주시는 ㈜서주유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탁된 성금은 관내 소외된 이웃들에게 소중히 전달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서주유유는 청량음료, 분유, 아이스크림 등 다양한 유제품을 생산하는 종합 유가공 기업으로 지역 기반의 성장 철학을 바탕으로 한국 유가공 산업을 선도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무주라이온스클럽, 무주군에 성금·성품 기탁

국제라이온스협회 356-C(전북)지구 무주라이온스클럽이 9일 기부금 200만 원과 등산 안발 120개 (30만원 상당)를 무주군에 전달했다.

이번 기부활동은 지역 사회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함께 나누는 연발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다.

제47대 길명식 회장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손길이 필요한 곳에 늘 먼저 다가가 도움을 주고 싶어 기부를 하게 됐다"며, "어떤 자리, 어떤 상황에서든 참된 봉사와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초심을 새기며 우리 주변을 살뜰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주라이온스클럽은 회원 28명으로 구성된 NGO 봉사단체로 2015년부터 지금까지 불우이웃 돕기 성금과 성품을 기탁해 이웃간 서로 돕는 상부상조와 전통 미덕을 널리 확산시키는데 앞장서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애인 인권세미나·문화예술공연 성료

장애인 인권 주제 발표·공로 표창 등 진행

전북장애인복지문제연구소 전주시지소(소장 이영재)가 주최하고, 전북장애인복지문제연구소가 주관하는 '제24회 장애인 인권세미나·장애인문화예술공연'이 지난 7일 오후 1시 30분, 전주 바울교회 바울센터에서 열렸다.



전북이사장 등 임원들과 장애인 및 가족 300명 등이 참석했다.

인권세미나에서는 김양욱 전북장애인복지문제연구소장의 사회로 이남숙 전주시의회 의원, 이방희 전북도민일보 부국장, 김동욱 인권운동가, 이해진 장애인 성폭력 상담소장이 장애인

인권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함께 진행된 장애인문화예술공연에서는 아랑고고장 구 동강분대, 안선희 명창, 이호기 대금연가, 가수 이수정·인규·정순임·박다감·송희숙·애정아·황금석 등이 무대 위에 올랐다.

공로 표창 수여식에서는 정현자씨가 전주시장 표창을, 안선아씨가 전주시의회 의장 표창을, 정희상씨가 전주교육지원청 교육장 표창을, 황선길씨가 전북장애인복지문제연구소 표창을 수여받았다.

이밖에 장애인 150명에게 쌀등을 추첨해 푸짐한 물품을 전달했다.

/김재훈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부물품 바자회 수익금 전달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문승우)는 9일 의정실에서 장애인 활동지원 및 권익보호를 위해 써달라며 (사)전주시장애인단체총연합회에 기부물품 바자회 수익금 300만원을 전달했다.

도의회는 지난 11월 20일 아름다운가게 전북본부와 함께 도의회 청사 앞에서 도의원 및 사무처 직원들로 기부받은 옷과 가전제품 등의 물품을 판매했다.

문승우 의장은 "기부물품 바자회를 함으로써 자원순환에 동참할 뿐만 아니라 수익금을 장애인들의 자립을 위한 사업에 전달하게 돼 기쁨이 두 배이다"라며 "행사에 동참해 준 의원님과 사무처 직원, 그리고 함께 뜻있는 행사를 추진해 주신 아름다운가게 김진형 공동대표께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수익금을 전달받은 박진영 전주시장애인단체총연합회 사무처장은 "소중한 마음을 모아주신 의회와 아름다운가게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다"라며 "수익금은 장애인 신체·가사활동 지원 및 권익보호를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OCI SE, 발전소 주변 어려운 지역주민들 위한 성금 기부

9일 OCI SE(주)(대표이사 한철)는 발전소 주변 지역인 소룡동·미성동·옥서면의 저소득 가정 8세대에 각각 100만 원씩 총 800만원의 성금을 기탁했다. 또한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도 수건 600세트를 전달했다.

OCI SE(주)는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과의 교류를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다양한 나눔 활동을 지원해왔다.

특히 9년간 소룡동·미성동·옥서면의 약 730명의 중·고·대학생에게 9억여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활동은 OCI 그룹의 대표적 ESG 경영이라고 할 수 있다.

OCI SE(주) 한철 대표이사는 "발전소 주변 주민들과 상생하면서 힘든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이번 지원을 결정했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지역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활동들을 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정삼권 소룡동장은 "이번 기부가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



는 저소득가정에 큰 힘이 되어 추운 겨울을 잘 이겨내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라며, "지역사회에 꾸준한 지원을 해주시는 OCI SE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임직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군산=이재훈 기자



정읍시의회 송기순 의원, 행복나눔 봉사대상 수상

정읍시의회 송기순 의원이 최근 '제11회 대한민국 행복나눔 봉사대상' 기초의회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 상은 국가와 사회행복지수 발전에 공헌을 한 기관이나 단체, 개인 등을 발굴해 이들의 공적을 널리 알리고,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기획된 시상이다.

송기순 의원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의회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고, 주민의 권익 신장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수상자로 선정되었으며, 특히, 의원 연구단체인 '정읍 역사·문화 연구회'를 통한 문화자원 발굴과 예술의 부흥을 위해 매진하였고, 농촌 주민들의 지역별 여건을 고려한 정책 수립과 어려운 이웃을 위한 숨은 봉사 등 삶의 질 향상과 사회서비스 확충을 위해 노력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송기순 의원은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농협 순창군지부, 장애인후원회에 생필품 기탁

NH농협은행 순창군지부(지부장 이병희)는 지난 5일 순창군 장애인후원회 후원인의 밤 행사에 참석하여 장애인과 함께 따뜻한 정을 나누기 위해 200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기탁했다고 전했다.

이병희 순창군지부장은 "우리 주변에 소외된 이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함께 살아가는 나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기부에 동참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대표 금융기관으로서 지속적인 지원으로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는 농협이 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왕원 기자



남원지역 결혼이민자들,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남원시는 관내 결혼이민자들이 지난 12월 8일, 남원시가 축제터에서 직접 담은 김장 김치를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 주면서 따뜻한 나눔의 손길을 전했다.

남원시가축제터 주관으로 추진된 이번 행사는 초기입국 결혼이민자 30명을 대상으로 한국의 전통 김장 문화를 체험하고 김장김치를 소외된 이웃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나눔과 봉사에 대해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주천면, 공공 작은도서관 현판식

남원시 주천면은 지난 4일, 공공 작은도서관 현판식을 가졌으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지식과 문화의 중심지로서 주민에게 새롭고 다양한 도서 환경을 제공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주천면 작은 도서관은 지난 5년간 지역주민의 기부 및 자원봉사를 통해 운영되었으며, 현재 소장 도서는 3,600권이 고 열람석은 20석 규모로 도서 대여와 도서 모임 등을 통해 주천면 독서문화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다. 김재하 주천면장과 관내 기관단체장 10여명이 참석했으며, 앞으로 운영위원장 선출과 사무장 채용 후 체계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